

파라과이 마르지 않는 샘 6월 기도편지

브라질 이과수 폭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입니다. 세계 최대폭포라고 하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Dia del Madre (어머니의날)



어머니의 날에 학교 Danza(춤수업) 시간에 배운 파라과이 전통춤을 선보이는 히엘. (파란색 치마)

친한 친구가 생겼어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파라과이에 온 지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이곳에서의 생활 속에서 불과 4개월의 시간이 마치 4년이 지난것 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째서 일까요? 아마 저희가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여러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저희 가정에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기도와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1. 자녀, 학교

1) 저희 가정의 귀한 보물, 히엘(8세)_다니엘(5세)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7시까지 학교에 등교하는 일이 한국 학교에 비교하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 어려움이 따르지만, 뒤쳐지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안심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도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잘 돕고 있습니다.

2) 지난 Dia del Madre(어머니의 날) 행사에서 그동안 배운 전통댄스를 선보인 히엘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직 어색할 텐데도 열심히 해내는 모습이 엄마 김진경 선교사를 감동시켰습니다. 6월에는 첫 시험이 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맞는 시험 앞에 히엘이가 시험들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3) 다니엘도 유치원(Jardin)에서 잘 적응 중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통하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쭈뼛거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하고, 친한 친구도 생겼습니다. 학교 가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요즘에는 언어에 진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씩 깜작 놀란다고 합니다. 스페인어 어휘와 문장이 조금씩 늘어가는데 감동입니다! 무엇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선교지 생활에 잘 적응해 주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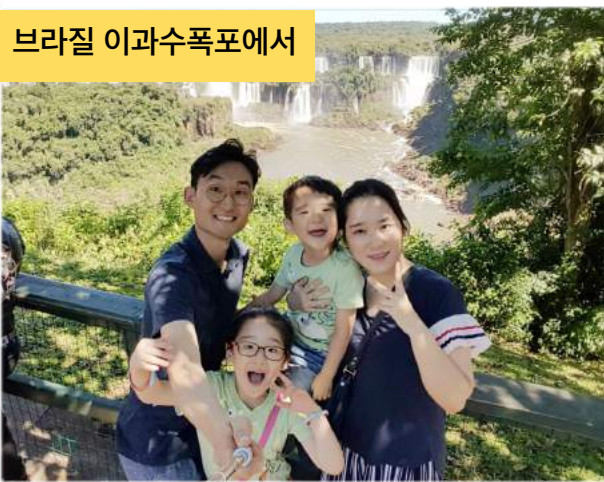
2. 가정생활

지난 4월 달에 세계최대 폭포라고 하는 이과수 폭포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위대함을 체험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맛볼수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선배 선교사님이신 이태호 선교사님께도 저희 가정이 이곳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니다. 훌륭한 선배 선교사님을 만나서 잘 배우는 것도 참 큰 복입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와 케어에 힘입어 부족한 저희 가정은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저희 두 자녀, 부부가 무탈하게 생활하는 것도 참 큰 은혜 입니다. 2년동안 현지문화 적응훈련 기간동안에 가장 큰 목표가 건강과 안전입니다.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서 초기 사역적응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벚꽃놀이 그리워 대신 바나나 꽃 놀이



브라질 이과수폭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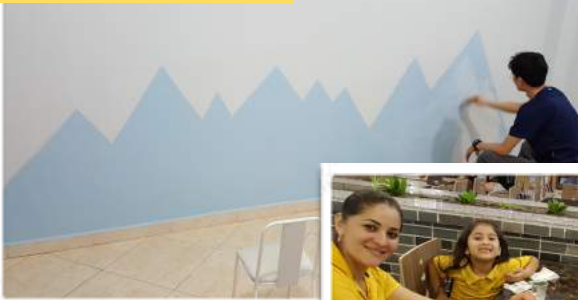


독립기념일 행사 후



선배목사님과 함께

곰팡이 핀 아이들 방 도색



스페인어 야외수업

3. 참여중인 사역

- CER 기독교학교

협력사역지인 CER 기독교학교 사역을 통해 열심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적응 훈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목사님의 배려로 교회와 학교에서 작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 1) 지난 5월부터 한달에 한번 주일예배 설교와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 2) 6월달부터는 주일예배, 수요기도회, 학교설교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생각입니다.
- 3) 물론 이태호목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설교를 위한 준비를 통해서 **스페인어 뿐만 아니라 주영광교회 성도와 CER 학교 학생들과의 빠른 관계의 접촉점**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감사한 일입니다.
- 4) 언젠가는 스스로가 스페인어로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해봅니다.

- 주영광교회

- 1) 주 영광교회는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지인들에게서는 찾아 보기 힘든 신앙의 성숙함도 봅니다. 때로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 2) 저는 선배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설교와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부분들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 3)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주일예배 특송을 했습니다. 제목은 'Cristo me ama'(예수 사랑 하심은)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 4) 주영광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강하고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교 과제 발표회 중



CER 학교에서 설교



주영광 교회에서 설교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족 주일예배 첫 특송



학교 공사 중



공사가 진행중인 운동장



유치원 아이들의 모습



낡은 놀이 기구들

4. 사역현황

- CER 기독교학교

1) 학교에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선교사인 저희 사역자들이 직접 학교 공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기술을 잘 익혀두면 나중에 집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손으로 사역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2) 학교 사역에도 필요들이 참 많습니다. 16년동안 학교가 많이 성장해서 학생 약 500명 규모의 좋은 학교로 발전했습니다. 학교의 설립자되신 김진호/계숙영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태호/김미순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 이렇게 선교사들이 기독교적 사명감으로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운영자체가 이윤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3) 학교와 학생들의 필요를 위해서 작은 운동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초, 중고등학교가 같은 운동장을 함께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부터 학생들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창 진행중인 공사에 어떠한 사고나 방해 요인 없이 완공까지 무탈하게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4) 또한 재정의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5) 저희 다니엘이 다니는 유치원에 놀이터도 많이 낡아 있습니다. 구조물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놀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지만 이곳도 안전한 놀이터로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새로운 놀이터를 만드는 비용자체가 상당히 고가라 부담이 많습니다. 어린 친구들의 안전과 지속적인 학교의 변화들에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이곳의 일이 많고 피곤해도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학교 사역의 큰 장점입니다.

5. 생활문화

현금탈취 테러사건(폭탄 및 총격)



최근 저희 생활권 안에서 무장 강도에 의한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과 불과 4km거리 옆동네 같은 곳이고, 저희가 장보러가는 마트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이라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라질인들로 구성된 4-50여명의 중무장 떼강도가 새벽에 현금수송업체 금고를 강탈해 수백억원의 재산피해와 폭탄테러로 인한 건물파손 경찰피격 사망사고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시우다드델에스떼는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만나는 3국 국경지대입니다. 이곳에 밀수품과 마약, 총기류의 반입이 빈번하다보니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온 저희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에서든 문을 잘 잠그고 있어야하고 거리를 돌아다닐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 학교 음악 선생님이 퇴근시간(낮12:30분경)에 불과 학교에서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오토바이 무장강도를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6. 기도제목

파라과이는 요즘 해쁜 날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우기라 비도 자주 옵니다. 집은 습해져서 곰팡이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7-8월이 되면 더욱 추워집니다.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이 조만간 찾아옵니다. 한국과는 완전 반대의 계절입니다. 한국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곳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는 저희 자신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배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팀을 이루어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주시는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 히엘(8세), 다니엘(5세)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스페인어와 과라니어(원주민 언어) 실력도 속히 좋아지도록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3. 가족이 큰 질병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 불안한 치안 속에서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강도나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5. 주영광교회와 CER 기독교학교 사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6. 건축중인 학교운동장의 재정적인 필요와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7. 한국에서 6개월간 암 치료를 마치시고 사역지로 돌아오신 김미순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이태호/김미순 선교사님과 두 자녀 영광/크리스티나)

